

# 치유농업 기반의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과 향후 과제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범사업 참여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

김은혜\* · 김정은\* · 류진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The Experiences and Future Challenges in Providing of Social Service based on Agro-healing - Focusing on Agro-healing Farms Participated in Gyeonggi-do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ilot Project -

Kim, Eun-Hye\* · Kim, Jeong-Eun\* · Ryu, Jin-Seok\*\*

\*Dep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future challenges in providing of social service based on agro-healing. The study conducted was a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which involved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experiences shared by four representatives of participating in Gyeonggi-do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ilot project. The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the findings were thoroughly analyzed to draw meaningful insights. The study revealed three main topics of discussion: “knowing the necessity of entering social services,” “thresholds to be crossed to enter social services,” and “future tasks”. Based on the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social services related to agro-healing were suggested, and the limitation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gro-healing,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Social Service, Qualitative Research

### I. 서 론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다양한 사회서비스 유형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사업을 의미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수요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 불안정,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의

Corresponding author 1 : Kim, Jeong-Eun

Tel : +82-42-821-6471

E-mail : cnuswkim@cnu.ac.kr

Corresponding author 2 : Ryu, Jin-Seok

Tel : +82-42-821-6475

E-mail : jsryu@cnu.ac.kr

하면, 18개 분야의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의 비율은 58.4%로 나타났지만 사회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더 낮은 33.1%에 그쳤으며, 향후 문화와 여가, 신체건강, 노인 돌봄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의향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Ahn et al., 2021). 이에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기조로 ‘약자복지’와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공급 주체를 통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돌봄체계의 혁신으로 수요, 공급의 확대, 혁신 기반 구축, (중사자) 처우개선의 3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Khang et al., 2023).

이러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정부의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의 추세 속에서 치유농업과 치유농장이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23년 3월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의 급변화로 다양해진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를 발굴하는 사업의 공모 결과를 들 수 있다. 즉, 선정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심리정서와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치유농업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강원을 비롯한 경남, 전북, 경기도 등에서는 농촌진흥청이나 치유농장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치유농업 서비스나 교육·훈련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Korea Central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2023).

더 나아가 2023년 3월과 4월에 국내 최초로 충청북도 진천군과 경기도의 4개 시·군(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 이후 9월에는 용인시, 화성시 추가 지정)에서는 발달·정신장애인들의 신체·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유농업 기반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활력과 지역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에 있어 치유농업 서비스의 유용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유농업 기반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범사업 추진은 우리나라의 첫 치유농업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치유농업 기반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작은 이제 우리나라가 서구와 같이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제도의 일환으로 치유농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본격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유농장의 사회서비스 진입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회서비스 공급 문제의 큰 한계로 이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대부

분 소규모의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개별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한 재투자(인력, 콘텐츠, 마케팅), 자생력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 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Ahn and Ha, 2022; Korea Central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2023). 여기에 지자체 등록제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역시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영세한 영리기관 간의 과도한 진입과 경쟁이 매우 치열한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급기관이 부족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와 양적 및 질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Khang et al., 2023).

현재 우리나라의 치유농장 여건도 이러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의 치유농장 대부분 농장주 1인 혹은 농장주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농가이며(Lee, 2023),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장기적인 농업생산 활동보다는 단기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Yoo et al., 2021) 일정 기준의 인력·자격, 시설·장비 기준을 요구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등록과 운영이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 대상의 치유농장의 경우 치유농장까지의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자 모집의 어려움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평가 역량, 향후 지자체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중앙서비스지원단으로부터의 정기적인 행정감사, 품질평가와 관련된 행정 부담 역시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적은 수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범사업이지만 치유농장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자체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공급 주체로 진입한 이상 이들 장애인 치유농장의 운영 성과는 향후 치유농장의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확대, 서비스의 전문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국내 최초로 치유농업 기반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범사업 운영의 장애인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최초의 치유농업 기반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인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과 향후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4곳(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의 치유농장을 방문하여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의 심층면담과 자료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치유농업 기반의 사회서비스 모델의 확대와 양질의 장애인 치유농장의 표준화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서비스 개념과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적용한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민간 공급 주체의 유입을 도모하는 등 서비스 공급기반의 다변화와 개별화된 욕구들(personalized needs)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도화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 차별화된 정책 시도로 평가된다(Park,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등장한 것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voucher)은 서비스 전달비용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를 말한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으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및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이다. 즉,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에게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공공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면 바우처 방식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서비스 전달체계이다(Jung and Ahn, 2018).

그러나 이론적으로 전자바우처 방식이 선택과 경쟁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활발한 시장기제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정부 규제의 서비스 단가가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가 안 되어 한정된 수요에 대한 제공기관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편법적인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Ahn, 2020; Shin, 2013).

## III.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유농장이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공급주체로 진입하면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치유농장 농장주들의 사회서비스 등록 및 제공 경험과 경험 이면의 심층적인 의미들을 탐색하고 향후 과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general qualitative research)으로 수행되었다. 일반적 질적연구는 해석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들을 절충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관심과 선택에 따라서 인식론적-존재론적 전제에 구속되지 않고 폭넓은 연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Kim, 2016).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참여자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23년 경기도의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에 위치한 4개의 치유농장의 대표자들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연구참여자 4명의 주요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연구진들은 치유농장 4곳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s)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남자 3명, 여자 1명이었으며, 연령은 40대~50대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은 대졸, 대학원졸이었으며, 치유농장을 포함한 평균 총 농장 운영 기간은 약 18년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장 대표와 함께 농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다른 제공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Gender	Age	Experience with Agro-healing
A-1	M	40s	Edufarm 15 years Agro-healing farm 4 years Social farm 1 year
A-2	F	50s	Agro-healing farm 10 years
A-3	M	50s	Edufarm 5 years Agro-healing farm 6 months Pig farm 25 years
A-4	M	40s	Edufarm 13 year

인력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이나 교육훈련 경험을 살펴본 결과 원예치료사, 사회복지사, 치유농장 운영자 교육, 치유농업 교육 등이었다. 4곳 농장 모두 개인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먼저 전화로 동의를 구한 후 농장에 직접 방문하였고, 인터뷰 진행 전 연구의 목적과 연구윤리가 포함된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연구참여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

개별 심층면담은 2023년 6월 한달 간 실시되었고, 사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전달한 주요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약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사회서비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현재 제공하는 치유농업 서비스들은 무엇인지?”, “앞으로 치유농업이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공급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등이었다. 인터뷰는 이러한 반구조화된 질문 양식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 동의 하에 녹음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정확한 내용 확인은 전화통화와 서면 확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면접을 통해 수집된 녹취 자료들을 전사하여 축어록으로 만들고, 범주와 핵심 용어들을 기술하여 임시 스토리를 구성한 뒤, 의미 단위 분석과 패턴 분석 후 범주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범주를 구성하고 각 범주에 포함된 내용과 연구자의 해석을 종합하였다.

연구의 엄격성을 위해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같은 기초정보는 확보하되, 이를 코드화하여 관리하였으며, 수집된 정보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저장 및 보관하였다.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는 즉각 폐기하며, 연구자료는 3년간 보존 후 폐기할 예정이다.

##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새로운 공급 주체로 치유농업 사회서비스에 참여한 치유농장주들의 경험과 향후 과제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사회투자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치유농장 4곳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련 경험을 개별적인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후 일반적 질적연구방법으로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 1. 사회서비스 진입의 필요성을 알다.

연구참여자들은 치유농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한 형태로 진입한 것은 농업과 복지의 연계이며, 이를 통해 농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유농업이 앞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유용한 공급주체라는 점을 확신하였다. 이는 치유농업 기반의 사회서비스가 장애인 대상의 다른 사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당사자의 치유나 재활, 돌봄 향상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2. Result of Qualitative Study

Theme	Meaning
Knowing the necessity of entering social services	Expectation of stable farm income
	The healing power of space
	Personal change changes the family
	Starting a supportive group
Thresholds to be crossed to enter social services	Difficulty recruiting service users
	Concerns about the scope of service users
	Basic necessary facilities
	Duration of service considering seasonal characteristics
	Service prices experienced by farm owners
	Difficulties in pre and post program testing
Future tasks	Difficulties in service procedures
	The need for solidarity between ago-healing farms
	Treatment that requires more expertise
	Difficulty for service users to move to the farm
	Frequent movement of personnel

### 가. 안정된 농가소득 기대

연구참여자들은 치유농업이 사회서비스로 진입함으로써 적더라도 고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게 예산의 문제니까. ... 어떤 경영의 다각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도 소득이 돼야 되거든요. ... 이게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득 부분에서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A-1)

“... 지자체에서 돈을 내주니 그게 좋은 거죠. 일단 4,800만 원을 깔고 들어가면 마음이 얼마나 여유가 생겨요. 감사 둘을 써도 일단은 마음 편하지.”(A-4)

### 나. 공간이 갖는 치유의 힘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시장분석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Kim et al., 2011), 영유아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은 사설 치료기관이나 재활센터와 같은 실내공간으로 조사되었다. 즉,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환경은 여전히 매우 제한된 시설중심의 의료적 치료나 재활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공간과 환경이 실외, 농장이라는 다양성 차원에서 유효성과 기대효과가 확인되었다.

“(발달장애인들이) 일단 야외에 나온다는 그 자체로서 커다란 그냥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그게 효과예요. ...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텃밭 활동하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야외니까.”(A-1)

“애들이 밖으로 나와서 뭔가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그게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A-3)

### 다. 개인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부모 자신의 정서적인 어려움 등을 경험한다(Sung and Oh, 2011). 연구참여자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가족들도 여유를 갖고 웃음이 생기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어느 순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엄마들에게) 말을 붙이고 하니깐 그때는 좀 약간 웃어주시고 지금은 이제 너무 좋게 밝게 웃으면서 와주시고, 웃으면서

가시고 이러는 게 보여요.”(A-1)

“(엄마들도) 이전보다 여유가 있어 보이고 아이들도 ... 사실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물 뿌리고 그냥 엄마들도 조금 여유가 있고 아이들도 자기 놀고 싶은데 가서 놀고 연못 가서 놀고 있고.”(A-3)

### 라. 지지집단의 시작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는 주로 개인별 의료시설이나 사설 센터에서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 치유농장에서의 집단활동은 매우 새롭고 의미 있는 지지집단 형성을 촉진하였다.

“단체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같이 단체로 움직여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같이 한, 두 분, 세 분 정도 이렇게 같이 무슨 센터에 가거나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모이는 건 처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A-3)

## 2. 사회서비스 진입을 위해 넘어야 할 문턱들

치유농업 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용자 기준과 이용자 모집 과정, 프로그램 운영, 수익 등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

#### 1) 서비스 이용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주로 개인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냥 시에서 홍보한 것 보고 오신 분들하고 또 시설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반도 채 안되어 가지고 4개 시군이 다 난리가 났었어요 ... 그 고객 모집이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A-4)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연구참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A-3의 진술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부모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실제, 일반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찾았지만 오히려

러 공식체계보다는 비공식적 체계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 획득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Park, 2014).

“어머니들이 그거 시에서 문자 뿌리면 아무도 안 본대요. 그러니까 원장님 이거 자기네도 그냥 별로 기대를 안 걸고 온 거라는데 이거 제대로 알았으면 아마 신청자가 엄청 많았을 것이라 고.”(A-3)

## 2) 서비스 이용 대상자 범위에 대한 고민

현재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만10세 이상의 ① 발달장애인법상 발달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한 자와 ②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대상자들은 특정 대상을 발달장애인으로 한정시키기보다 일반인 대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치유농업은 전문적인 의료나 복지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농장주에게 모든 것을 갖추라고 하기보다 일반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치유농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은 꼭 특정 대상을 상대로만 하는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같은 농장들은 굶어 죽어요. 파이가 더 좁아지는 거니까 ... 치유농업도 반드시 그 대상을 너무 한정시키면 안 되고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저변 확대가 돼야지 이게 꼭 뭐 아픈 친구들 뭐 이런 분들이 오면 너무 시장이 작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A-1)

“뭔가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 내가 혹시 자폐의 성향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러면 교육받을 때 얘기했듯이 대상은 아무튼 전 국민 누구나 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문제이지요.”(A-3)

“치유농업이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맨날 장애인 얘기만 하난 말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일

반 이용자들이 장애인인 와서 이용하는 곳이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A-4)

반면, A-2는 처음부터 장애인만을 위한 치유농업 서비스로 특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폄기기도 하였다.

“치유농장이니까 우리가 보통 구분해 보면 특수 목적 대상, 일반인 대상 하잖아요. ... 저는 이걸 구분하는 게 일이 더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맡겨놓으면 하기는 하는데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할 것 같은데 또 맡겨놓으면 정성껏 하고 있고 ....”(A-2)

## 나.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지원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 수립 시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서비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이에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치유농업 서비스의 지원 기간 역시 1년이다. 12개월이라는 서비스 기간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농장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까지 모두를 소화해야 하는 업무의 양과 프로그램 내용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또한 농장주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과 이동 도로 등의 편의시설들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 1) 기본적인 시설 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 지원 기간은 12개월이기 때문에 야외활동이 많은 치유농업 서비스는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시설들 간의 진입과 이동이 용이한 경사로 등 기본적인 시설들이 잘 갖춰질 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이 용이하다. 이미 시설을 갖춘 농장도 있으나, 이번 사업으로 새로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농장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치유농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무 그리고 녹색의 공간들 그리고 이 정도는, 길 정도는 좀 닦여져 있는 이런 공간이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해요. ... 휠체어 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제안을 한 이유가 저희가 화장실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약간 난감한 상황이에요.”(A-1)

“제가 생각하는 치유농업에서의 기준은 저는 이 자연환경인 것 같아요. ... 일단 기본 베이스는 자연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치유나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죠. ... 자연의 어떤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거기서 뭔가를 배워서 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 저기 지금 내려오실 때 살짝 내리막이잖아요. 근데도 휠체어는 우리 보조 선생님이 항상 속도 조절을 하계끔 해요. 저 정도도 속도가 붙어요. 근데 요런 거 하나하나가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지만 힘들죠. ... 겨울에 난방이 돼야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돼야 되고요. 화장실 가까워야 되고요.”(A-2)

“하우스가 있긴 한데 겨울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일단 좀 걱정이구요.”(A-4)

2) 사계절이 있는 농장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나까 자기 그쪽 기준에 맞춰야 하나까 12개월이라고 그러는데 막상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동물 친구들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괜찮겠다 싶어요. 그렇지 않은 농장이라면 실제 농작물이 사라지거나 10월 이후에는 과연 농장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다는 건지...”(A-1)

“농부가 이 바우처 사업에 들어와서 1년에 48회기를 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A-2)

“겨울철이 사실 걱정이거든요. 겨울철에 안 하면 좋겠다. 겨울철에 안 하면 겨울철에는 좀 쉬고 나머지 열심히 혼자 할 수 있으니까요.”(A-3)

“겨울이나 여름에 수익을 창출해 주기 위한 의도는 좋은 건데 결과가 그 계절에 농가들이 그때 체험을 해서 수익이 되겠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겠느냐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마철에 운영하려면 일이 너무 많아요.”(A-4)

다. 농장주들이 체험하는 서비스 가격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서비스 이용 비용이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농장 대부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우 적은 인력으로 농장 운영과 프로그램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동시에 본인들의 노력에 비해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바우처 사업도 올해 20명인데 20명 해봤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오면 4,8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수시로 빠지거든요. 이분들은 농장에 와서 2시간 하지만은 나는 일주일 내내 혼자 계속 관리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크게 남는 사업은 아니에요.”(A-3)

“자부담비가 있든 없든 간에 인당 5만 원이라는 체험비가 우리가 받는 돈이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 스무 명이 풀로 되지도 않고 안된다고 해도 재료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 여기서는 혼자서 10명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요. ... 이 단가가 벌써 10년, 15년, 그 단가 그대로니까 문제가 있기는 해요. 제공기관들도 너무 단가가 낮다고 해요.”(A-4)

라. 사회서비스 표준모델을 맞는 서비스 내용과 절차를 따르는데 어려움

치유농장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과 운영, 관리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감사나 품질평가 등 농장주의 다양한 행정 및 서비스 관리 역량이나 별도의 행정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행정이나 서비스 품질은 기관운영(서비스 운영규정과 지침, 회계관리,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제공인력 관리(노무관리, 제공인력 교육,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서비스 제공 및 평가(사업계획 및 평가, 사업 게시, 서비스 초기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록 관리, 이용자 모니터링, 이용자 고충처리, 서비스 종료 안내 등), 서비스 성과(이용자 유지율,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관리 및 경영(기관장 리더십, 사업계획서 및 평가, 환류 등) 영역 등으로 평가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소규모의 치유농장에서는 이러한 행정 활동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 연구참여자들 역시 매우 높은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의 어려움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성과평가는 전통적인 조직관리 측면의 평가를 지양하고 성과평가 중심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들 지표는 계량화된 성과지표 구성을 통해 신규 사회서비스 시장의 형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 촉발,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고 있다(Cho and Lee, 2011). 때문에 반드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그 성과를 문서 작업의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으로 과연 효과성이 나타날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농장일을 하면서 프로그램 진행과 서비스 제공기록과 평가 등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지적하였다.

“왜 농장주가 이걸 사실은 뭐 이렇게 발 갈아놓고 이것도 바쁘는데... 어머님 이거 척도 작성해서 주세요 해야 해요. 또 사실은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관심도 그렇게 없는 어머님들도 있어요.”(A-1)

“성과가 나와 된다고 비포 앤 에프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검사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 (장애 특성으로) 그날 올 때 체크한 것이라 갈 때 체크한게 다 지표가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 평가 척도 얘기가 나오면 농부들도 화가 나고 계속 다 화가 나는 거야. 현장에서는 맥파 검사하기도 어려워요. ... 이 정도의 운동량 갖고는 턱도 없는 얘기에요.”(A-4)

2) 서비스 절차상의 어려움

전자바우처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소득에 따라 현장에서 전자바우처 카드로 즉시 결제를 마치고, 자부담비도 별도로 입금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서비스 안내나 관리 역시 높은 부담으로 지적되었다.

“저희가 자부담비를 별도로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예요. 그냥 중앙에서 자부담비를 받아서 우리한테 일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부담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부담비를 안 내도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 내라 내라 해도 안 내고 있는 것을 계속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자

부담비 없이 그냥 자부담비를 차라리 우리가 안 받아도 되면 그냥 안 받고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받으면 또 그게 안 되죠. 안 받았다고 뭐라 그러니까.”(A-4)

“성인 (장애인)들은 보호자가 사실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야 되는데 그나마 여기 이제 재활센터에서 한 분이 소개해 줘서 이제 6명이라고 모아서 다녀왔는데 그분들은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쉽게 빠져요. 목요일에 일곱 명인데 일곱 명 할 걸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안 오면은 이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뭐 안 오면 절대로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오면 이제 수익이 확 줄어드는 거니까 그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A-3)

특히, 전자바우처 제공기관들의 서비스 결제 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당일 갑작스럽게 일정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들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규정상 제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20명이 신청이 돼 있으면 20명을 항상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연락을 하고 안 올 수도 있고 연락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날 어떤 재료나 이런 걸 다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안 와 버리면 그 돈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A-4)

“조금 유동성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을 여기서 만약에 못 만나면 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적어도 48회기 중에 45회기 정도 10% 정도는 여지를 좀 주시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100%를 다 여기서만 해야 돼 그러면 오는 날은 어떻게 할지... 보강 날짜 도저히 안 잡힌다 그러면 제가 돈으로 손해 봐야 해요.”(A-2)

3. 앞으로 남은 숙제들

가. 치유농장 간의 연대 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치유농장 모두 처음 경험하는 사회서비스 제도 안에서 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하고 있기에, 농장 간 의사소통 채널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뭔가 괜찮은 어떤 전국에 어떤 장소가 있다면 그냥 몇몇 농장의 대상자들을 모아서 어차피 버스를 대절해서 한 번에 이렇게 뭐 어떤 수목원이나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농장을 제대로 보거나 캠프로 좀 쉴 수 있고 뭐 이런 활동도 한번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A-1)

“이건 나누는 게 답이다. 내 것 안에서 내가 48개가 다 찾더라도 내가 할 것은 48개가 다 차도 남의 것을 봐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3배수 거든요. 내가 48개를 해야 되면 저는 적어도 3배수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제가 그게 있냐는 거죠. 없단 말이에요. 저는 서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한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농장이 서로 사례 발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A-2)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할 거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로서 뭐라 할까? ... 효과는 둘째치고 농장주로서 해안이라고 할까? 의무처럼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만족시켜 줘야 돼, 그런 뭔가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그게 결국에는 자충수로 돌아오지 않을까 해요. 그것은 밑도 끝도 없거든요. 말 그대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부담이 ...”(A-3)

#### 나. 치료는 보다 전문성이 요구됨

연구참여자들은 서비스 제공자인 농장주가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추기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이용자를 위해서는 지역상담센터나 정신과의 전문인력과 협업이 필요하며, 농장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 등 이용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상담센터랑 연계해서 지금 약간의 독립된 공간을 다 만들어주면 여기서 활동하고 ... 약간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이런 것도 괜찮고요.”(A-1)

“우리가 치유농장에서 진짜 증증 환자들을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농업인들한테 자꾸 이렇게 해 갖고

치유를 좀 하려면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하는데 교육농장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농업인인데 교육농장 때는 우리보고 또 선생님 하라고. 거기다 근데 그것도 내년 가서는 나눠 먹기를 더 해야 되니까. 보편은 지금도 아쉬운데 또 그 예산을 더 늘지는 모르겠지만 나눠 먹기 시작해 버리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A-4)

#### 다.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는 현장경험이 중요

연구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에게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갖추어야 할 관련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천천히 쪼개서 48회기를 맞출 수 있는 농부는 있는가? 그리고 제도적인 것에서도 농부들이 상담학도 공부했고 사회복지학도 있고 다 있다, 그래도 이게 경험이잖아요? 실은 많이 발달장애인을 만나 봐야 되고, 많이 경험해야 되고, 그 종류가 다양한 장애들을 겪어봐야지 실은 대안이 나오는 일인데 그런 경험을 가진 농부가 있을까요?”(A-2)

“치유농업사 문제가 뭐냐면 이론만 알지 실무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격증이 많아도 실무 경험이 없으면 현장에서 일을 못하니까. 진짜 현장 경험이 많이 있어야 하죠.”(A-4)

#### 라. 서비스 이용자들이 농장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직접 이동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 어쩔 수 없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Hwang and Kim, 2022).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달리 치유농업 서비스는 주로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에 위치한 농장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이동 차량까지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또한 자차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의 규제와 주변의 민원으로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도 존재하였다.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을 먼저 허용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 무조건 치유농업을 하는 공간들이 도심지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 수

단이 반드시 필요해요.”(A-1)

“그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인데, 주차장이 마음대로 허가가 안 나고, 또 주변에서 신고해요. 저기 감자 심은 것도 농사 안 짓는다고 신고해서 심은 것이고.”(A-4)

### 마. 담당자의 잦은 이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각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과 훈련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치유농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치유농업에 대한 낮은 전문성으로 농장주들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바뀌면 바뀐 선생님한테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거죠. ... 처음 부임하신 분은 여자인데 자기는 (치유농업을) 모르겠대요.”(A-1)

“전에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뒀어요. ...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만 그 담당자 자기도 잘 모른대요.”(A-4)

## V. 요약 및 제언

치유농업이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공급주체로 진입한 점은 농촌과 복지연계라는 실천적, 정책적 차원에서 큰 함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유농업이 사회서비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치유농장들이 공급주체자들이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과 향후 과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치유농업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치유농장 4곳의 대표들의 경험을 개별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 후 질적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한 형태로 진입한 것은 농업과 복지의 연계이며, 이를 통해 농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서 치유와 지지집단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유농업 서비스와 치유농장이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서 유용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용자 모집의 어려움에서부터 이용 대상자 기준과 확대에 대한 고민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의 필요성, 제공인력에게 현장경험의 중요함, 계절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기간, 농가의 안정된 수익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필요, 사전·사후 검사 등의 어려움이었다.

셋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서비스 진입 이후 남은 과제나 향후 과업으로 치유농장 간의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서비스 제공자인 농장주가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추기 보다는 지역상담센터나 정신과의 전문인력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동의 문제, 행정상 공공기관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상 곤란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 서비스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공급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선 다른 서비스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농장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모델과 경영 노하우를 표준화하고, 소셜 프랜차이즈를 통해 소규모 제공기관과 공유하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중앙 및 각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함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치유농업 기반의 제공 농장과 각 지자체 우수 치유농업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화 작업이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진입 및 운영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공유가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치유농업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프로그램 계획부터 실행, 농장운영 등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치유농업 기반의 치유농장을 운영 중인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중심의 전문 컨설팅과 농장주 대상의 방문형의 사회복지 관련 보수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사를 중심의 컨설팅 기회가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치유농장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용자 모집부터 홍보, 보호자 상담 등에 대해 농장주가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활동지원사와 같은 다중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농장·이용자·제도를 연계해 주는 새로운 지자체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체의 신설이나 각 지역사회서비

스지원단의 치유농업사의 신규 채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매우 제한된 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질적연구 방법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큰 한계가 있다. 연구시행 초기 최초의 시범사업에 대한 질적사례이기 때문에 농장주 이외에도 사회서비스 제공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적인인터뷰를 계획하였지만 농장주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높은 부담, 장애인 이용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자체의 우수 치유농업 시범사업과 치유농장, 중앙 및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이용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차원의 치유농업의 효과성과 발전 방향에 관한 양적 및 질적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23년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명: 발달, 신체장애인의 치유농장 활동지원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개발, 과제번호: RS-2021-RD009660).

## References

1. Ahn, S. R., 2020, The Status of Management of Social Services Providing e-Voucher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88: 36-50.
2. Ahn, S. R. and Ha, T. J., 2022, Recent Changes in the Industri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Jobs, Research in Brief, 105, 1-13.
3. Ahn, S. R., Lee, J. M., Seom Y. K., Kim, Y. H., Jung, S. J. and Park, S. K., 2021, 2021 Survey on Social Service Dem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4. Cho, E. S. and Lee, S. J., 2011,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3(1): 161-198.
5. Hwang, S. Y. and Kim, M. A., 2022, Service Accessibility Experienced by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Rural Areas: Perspectives of Mothers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53(2): 63-101.
6. Jung, K. H. and Ahn., S. Y., 2018, Review of Demand Side Financing System, Korean Local Administration Review, 15(3): 81-108.
7. Khang, E. N., Ahn, S. R., Lee, S. J. and Lee, H. N., 2023, The 2023 Outlook for Social Service Policy, Health and Forum, 315: 40-62.
8. Kim, I. S., 2016, Qualitative Method and Analysis in Social Welfare Research, Seoul: Jipmoondang.
9. Kim, J. H., Ryoo, K. M., and Choi, E. S., 2011, Service Needs and Market Analysis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10. Korea Central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2023, A Briefing on Social Service Standard Model Sharing Project 2023. 4. 10.
11. Lee, H. J., 2023, Current Status of Agro-healing Linked to Community Care in Hongseong-gun, Gong-ju University Thesis.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2023 A Guide to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13. Park, J. Y., 2014, A Qualitative Research of Experience for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8(1): 181-213.
14. Park, S. K., 2015, The Current Issues of Region Autonomous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ject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25: 49-59.
15. Shin, C. H., 2013, Does Competition Enhance Service Quality? Focusing on Interview with Voucher Service Supplie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4): 312-340.
16. Sung, C. S. and Oh, B. Y., 2011, Research on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 of the Family with a developmental Disorder, Social Welfare Review, 16: 5-24.
17. Yoo, E. H., Kim, J. S., Jung, S. J., Kang Y. K. and Kwon, H. L., 2021, Analysis of Programs Provided by Agro-healing Farm in Korea, Journal of Recreation and Landscape, 15(3): 1-12.

- 
- Received 5 October 2023
  - First Revised 7 November 2023
  - Finally Revised 14 November 2023
  - Accepted 16 November 2023